

“中企 총액한도대출 확대 고려 내년 상반기 4% 성장 어렵다”

이성태 한은총재 국감 보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내년에 는 투자리수 수출 증가율이 어려울 것이 라면서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에 대한 국 회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 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에 비해 총액한 도대출 규모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중소기업 사정이 안 좋으면 총액한도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4% 성 장하기가 쉽지 않으며 내년 수출은 투자 리수 증가율이 어렵다”고 밝히고 “지금 금융 쪽은 상당히 나쁘다고 보고 있으며 실물 쪽은 금년 중반부터 나빠지기 시작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과 관련, 이 총재는 “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월 말 현재 4.4%이고 이에 대한 총담금 적립금이 188%에 이 른다”면서 “은행만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사정이 나쁘며 감독당국이 예의 주시하 고 있다”고 밝히고 “저축은행의 총 대출 에서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 보다 높고 연체율도 높아서 감독당국이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해외자산 운용과정에서 손 실을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 체적으로는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작 년 말 기준 달러표시 자산은 전체의 6% 정도로, 자산의 배치는 여러 가지 상황 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은행채 만기 25조원 원화유동성 ‘빨간불’

기업·우리·신한 등 연말까지 갚아야

정부가 원화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와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점차 문제는 연말 까지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 25조원이라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시중에 원 화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국채와 톨안채 등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은행들은 은행채 차환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들고 있 는 국채가 많지만 유동성 비율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12월까 지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가 25조5천억 원에 달하는데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차 환이 힘들어졌다 는 것이다.

은행채 만기 규모는 이달이 9조원, 다음달이 7조8천억원, 12월이 8조6천억

원으로 전분기 18조원보다 훨씬 많은 수 준이다.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우리은행은 은행채를 아예 발행하지 않아 잔액이 3 천571억원 감소했고 신한은행은 1천500 억원, 외환은행 340억원, 국민은행 557 억원 줄었다. 기업은행은 증금채 잔액이 6천236억원 감소했다. 남은 만기가 3개 월인 은행채(AAA) 금리는 지난날 16일 5.63%에서 지난 17일 6.28%로 0.65% 포인트나 상승했고 3년짜리 은행채 금 리도 이 기간 연 6.72%에서 7.99%로 1. 27%포인트 폭등했다.

은행들은 정기에금으로 들어온 자금 을 이용해 만기도래 은행채를 갚고 있 다. 정기에금은 이달들어 지난 16일까지 6개 주요 시중은행에 10조원 가까이 들 어왔지만 연 7%가 넘는 고금리를 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연합뉴스

은행 대외채무 120~140% 지급 보증

정부, 내년 6월말까지 총외채 720억달러 추정

은행권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위한 정 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 까지 들어오는 대외채무를 총 1천억 달 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하고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절차는 국가재정법 9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국가재정법 92조는 국가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동 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총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은행들의 대외 채무 지급 보증 신청이 적합하다는 결론

을 내리고 보증액을 은행별로 배분한 뒤 지급보증 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 오는 은행 대외채무를 약 800억 달러로 추정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전날까지 은 행별로 취합한 결과 720억 달러로 정부 추정치보다 약간 적었다.

은행별 배분 규모는 기관별로 다소 차 이는 있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외채무의 120~140% 정도 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만기 금 액의 120% 정도를 정부가 보증했는데 우리도 금융기관 별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규모를 파악한 뒤 120~140% 정 도를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내년 한국 원·달러 환율 1,055원”

글로벌 인사사이트 예측

최근 유동성 문제로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내년에 한국의 달러당 연평균 환 유이 1천555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민간 시장예측기관인 글로벌 인사사이트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세계 무역 세미나에서 한국의 내년 환율 을 1천555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을 2.9%로 예측했다. 또 한국의 올해 환 유은 1천355원, GDP 성장률은 3.9%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지난해 환 유이 929원에 GDP 성장률은 5%였다는 점 을 감안하면 한국은 올해뿐 아니라 내 년에도 고통환율에 저성장이 불가피하 다 는 게 글로벌 인사사이트의 평가다.

미국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올해 GDP 성장률이 1.5%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내년까지 침체를 지속하 다 가 2010년부터 회복이 기대된다고 글로 벌 인사사이트는 밝혔다. 미국의 GDP 성 장률은 올해 1.5%에서 내년에 0.2%로 하락하나 2010년에 2.4%로 회복할 것 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환율 이틀째 하락·코스피 모처럼 상승

금융대책 ‘약발 효과’

내일 건설사 지원 대책·中 경기 부양책

韓銀 금리 추가 인하 여부 등 변수 남아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20일 오전 증시에서 급락세를 진 정시키는 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약발이 먹 힌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증시 상승은 금융시장 안정대책보다 프로 그램 매수세 유입과 아시아 증시 급반등 등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22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건설사 관련대책의 실효성과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이날 말 미국의 금리인 하, 다음달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여부 등이 본격적인 증시 반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96포인트(2.28%) 오른 1,207.63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주 말 미국 증시 하락 에도 이날 2.29% 상승하면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등 락을 거듭하다 오후 들어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반전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수혜가 예상됐던 은행 (0.70%), 철강·금속(7.23%), 건설(5.91%) 등은 비교적 큰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국계 증권사의 큰 폭의 목 표주가가 하향 조정으로 미래에셋증권이 가격제한폭까지 내 려간 것은 악재였다.

연합뉴스

금융시장 안정책의 약발이 먹힐 것으로 기대됐던 현대 중공업(-3.63%), 삼성중공업(-0.24%), 대우조선해양(- 1.64%), 현대미포조선(-4.13%) 등 조선주는 미래에셋증 권이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는 효력을 발휘했고, 증시상승에도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쳤지만, 주요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 다고 평가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17일)보다 달러당 19. 00원 떨어진 1,31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간 58,000원 떨어진 것이지만, 장 초반 100원 범위에서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신영증권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은 “금융시장 안정대책 은 환율을 다소 안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증시 불 안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건설사 쪽에 있는 만큼, 부동산· 건설사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지가 관건”이라 고 말했다.

하나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은 “22일 발표될 부 동산 대책에 건설사들의 미분양분에 대한 재정투입이나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와 ABCP의 정부 보증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LIG투자증권 서정광 투자전략 팀장은 “중국의 경기부양책, 29일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이 에 따른 한국은행의 내달 금리 인하가 향후 급반등을 이끌 어낼 요인이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수익보장 국민연금 내면서 건보료는 안내는 ‘암체족’

건보료 체납자 절반 이상 연금 납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국민연금 은 납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장기 간 체납하는 ‘암체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

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국 민연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 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

액 순위 상위 500명 가운데 절반 이상 인 58.2%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 었다.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낸 혜택이 없는 반면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낸 돈보 다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체납액 상위 500명중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291명의 건강보험 체납기간은 평균 6년 11개 월, 체납액은 평균 1천222만원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두바이 IT 전시회 출품 삼성 휴대폰

삼성전자가 19일부터 23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IT 전시회인 자이텍스(GITEX) 2008에 참 단 LCD TV, 휴대폰, 프린터, 노트북 PC 등을 대거 출품했다. 현지 모델들이 스마트폰 옴니아(왼쪽)와 800만화소 카메라폰 이노 베이트를 들고 있다.

삼성전자가 19일부터 23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IT 전시회인 자이텍스(GITEX) 2008에 참 단 LCD TV, 휴대폰, 프린터, 노트북 PC 등을 대거 출품했다. 현지 모델들이 스마트폰 옴니아(왼쪽)와 800만화소 카메라폰 이노 베이트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삼풍	재무관리 및 상품인출고 경리직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22	062-369-6804
호남도민일보	총무/웹디자인/편집디자인(BM)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2	010-2288-5119
㈜남양모터스	정규직 리셉션 신입 및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4	062-384-7713
㈜H&T	[연2400만원/주5일]SKT 114 상담원 모집(정규직)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0/24	062-350-6333
주노커피코리아	케냐 에스프레소 세정아몰렛셋 비리스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5	062-573-0410
대중개발(주)	경리회계사무원(건설업)	초대졸/경력2년	1400~1600	10/25	062-528-5800
정원림	홈페이지를 멋지게만드는 웹디자이너	초대졸/경력3년	1400~1600	10/27	062-382-2100
러블리수	사진편집, 물류유통관리 경력직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0/27	011-9616-2900
토내이도인시학원	각반 소수5명 정원 그룹수업 진행 강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7	062-652-0905
㈜천우기공	일반기무직 여사무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28	062-954-4369
㈜중원테크	영업, 제관, 지체, 구매 경력직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0/28	062-965-6446
㈜엘이티미스	광주 AMOREPACIFIC 전산유지보수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8	02-709-6381
엘씨엔(전연구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초대졸/경력1년	1800~2000	10/28	062-369-0604

<광주지프코리아 512-6210 제공>

김치 수입국 전략?

3년간 무역적자 9천억 달해

지난해 중국산 수입 376% ↑

김치가 수출은 제자리인 반면 중국산 수입은 크게 늘면서 지난 3년 동안 9천억원이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치가 2006년 처음으로 1천762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7년과 올해 1~7월에도 수입이 수출보다 각각 3천553만 달러, 2천416만 달러 많았다고 밝혔다.

3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7천732만 달러(9천300여 억원)에 달했다.

2005년 9천296만 달러에 이르던 김치 수출액은 같은 해 11월 기생충알 파동으로 급감한 뒤 2007년에는 7천530만달러에 그쳤다. 반면 수입 김치의 99.9%를 차지하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액은 2004년 2천947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1천844만 달러로 376% 급증했다.

연합뉴스

국의 유출 자금 287억달러

해외투자·유학비 등 ... 지난해보다 9.8% 늘어

올들어 7월까지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된 자금은 모두 28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 르면 해외직접투자, 해외예금, 유학연수경비 등 해외로의 유출 자금은 287억4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다.

해외로의 유출자금은 연간 기준으로 2005년 302억1천만 달 러, 2006년 389억4천만 달러, 2007년 513억 6천만 달러 등이 었다.

올해 1~7월 유출자금을 보면, 해외직접투자액이 84억7천 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5%가 늘어났고 일반여행 경비는 3.1% 줄어든 88억7천만 달러, 유학연수경비는 2.0% 감소한 28억1천만 달러였다.

연합뉴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엔 최고 2배 과징금 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최고 2배의 과징금을 부과 하고 기한내 환수가 늦어질 경우 가산금도 부과하겠다”고 말 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 37개 농어업인단체장을 과천 정 부청사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 집행되 는 올해 쌀 직불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정자만 받도록 철 저히 대처하고, 과거 부당지급 사례는 제조사해 끝까지 회수 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장 장관은 “직불제가 당초 목적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 용되지 못해 작년 감사원 감사 때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논의 됐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지지 못 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07년까지 부당 수령 자 전원에 대해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가 1차적으로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판정을 내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화장품 ‘순 성분 표시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부터 화장품 제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성분 표시제를 포함한 화장품 법이 개정되고 올해 9월 표시방법을 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모든 성분 표시제는 18일자 출고분부터 시행되며 이미 출고돼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의 경우 회사로 문의하면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 명했다.

식약청은 “전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자 신의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 인할 수 있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SK telecom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료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